

##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이들의 놀이와 놀이노래 조사연구\*

Analysis on Play-games and Play-songs of Korean Chinese Children

이 순 형\*\*  
Yi, Soon Hyung

###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analyse what games are played and what play-songs are sung among Chinese primary and middle school children of immigrants who emigrated from Korea to 延邊 about 50 years ago.

Questionnaire survey, asking about the kinds of games, play-materials, the origins of the games, and the contents of play-songs, was conducted on 50 5th-grade-children and 50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imary school children have enjoyed physical play. While playing, they sang the songs which they learned from their mother, grand parents, siblings, and teachers. The middle school children tend to play alone more than the primary ones, watching videos and listening to music. Especially they enjoy the popular songs of South Korea. This phenomena reflects the cultural change of the communist society which is struggling to transform its system to open market system .

### Key Words

놀이(play), 놀이노래(play-song), 민족정서(ethos)

\* 본 논문은 2000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문제 제기

조선족이 연변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는 조선말 기부터 일제시대 이후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대거 만주로 이주했다. 조선족(朝鮮族)은 한족(漢族)을 포함한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서 13번째로 큰 민족이 되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와 해방, 신중국의 건설, 문화혁명을 거쳐 중국의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승제, 1973 ; 김성호, 1991).

일제시대에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체로 두 부류이다. 한 부류는 일제의 침략과 그에 대한 항거와 독립 운동에 뜻을 두고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동조하고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또 한 부류는 북한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워 농토를 찾아 이주한 경우이다(류병호, 1989). 안수길의 '북간도'나 박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장면은 당시 주민들의 이주 모습을 잘 묘사했다. 연변 지역 사람들이 함경도 말씨를 쓰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주사를 반영한다. 이들은 처음 만주 땅에 발을 들여놓고 백두산의 중국령 고산지대의 평야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개간의 교역을 더고 북으로 이주하여 연변에 정착했다.

연변지역은 조선족 자치구로서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자주적 풍토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우리말(조선어)을 지키고 우리말(조선어)로 교육해 왔다. 조선족들이 대학을 세워 운영하였다. 연변대학이 중국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고 한다. 연변의 조선족들이 강한 생활력과 독립심으로 스스로의 생활양식과 자존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연변 조선족들은 자부심이 강하다(박경휘, 1987 한상복·권태환, 1993).

1980년대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 조선족이 모여 사는 연변지역이 남한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북한과는 이념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 공통적이고 상호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터이라 그동안 잦은 교류와 교역이 있었지만 남한과는 비로소 왕래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주로 북한과의 친척 방문과 보따리 장사를 포함한 소규모의 무역이 대부분이었다.

남한의 경제력과 상품에 관심이 집중된 중국 조선족들에게 자유분방한 남한의 소비생활문화가 영향을 미친 듯하다. 오디오 기구가 시판되면서 중국 청소년들이 일제, 한국제 녹음기를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대중문화에 접하게 된다. 대만보다는 한국의 가요를 접하면서 중국 청소년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남한에서 제조된 청바지를 선호하며 남한의 연속극을 즐겨 보고, 남한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 부른다. 해방 이후 전혀 교류가 없던 사이인지라 그 동안 1945년 이후의 대중문화가 단번에 유입되어 중국의 조선족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 생활문화의 영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조선일보, 1998, 12, 28) 야간 향락문화가 생기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객행위 등이 있으며, 남한 총각과의 혼인을 무조건 원하여 자진해 팔려오다시피 하는 일들도 발생한다고 한다. 상이한 생활문화의 갑작스런 접촉이 충격과 부작용을 만들어 낸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시금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이즈음에, 반세기 이상을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교포 어린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하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놀이는 아동의 생활문화로 전통과 관습을 포함한 것이다. 어린이들의 놀이행동은 단순한 놀이 자체

가 아니라 사회이념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의식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이해하려면 놀이의 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식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놀이조사는 필요하다.

민족의 서정시와 같은 어린이들의 노래가 20세기 중반에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생활문화의 이질화의 길을 걸어왔다(이기춘 외, 1998). 이러한 사회이념과 상황의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민

족의 정서를 담은 놀이노래가 유지되고 발전해 왔는지, 아니면 이도 역시 이질화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2대를 살아온 중국 조선족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를 조사하여, 놀이 실태는 물론이고 놀이 중에 부르는 놀이 노래 가사의 의미를 분석하여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정서나 의미의 공통성이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하려고 한다.

## II. 선행 연구의 고찰

### 1. 노래의 역사 고찰

노래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원시시대부터 민요(民謠)와 신가(神歌)로 시작되어 그때 그 지역 그 종족의 생활상에서 대질리는대로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곤 하여 왔다(조지훈, 1964).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노동요(勞動謠) 등 여러 종류의 노래가 전해왔다.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된 갑오경장 이후 독립신문에 개화가사(開化歌辭)가 실려 보급되었다. 개화가사는 전통적 가사 형식인 사사조(四四調), 연가체(連歌體)의 형식에 자주 독립, 경제 자립과 애국 애족 사상을 고취한 것이었다. 그후 창가(唱歌)가 유행되었는데 사사조와 달리 칠오조(七五調), 육오조(六五調), 팔오조(八五調) 등이고 연가체가 발달하여 차츰 절 구분은 생기고 후렴구(後敍句)가 붙는 창가 형식의 노래가 유행했다고 한다. 최초의 창가는 최남선이 발간한 경부철도가라고 한다. 조지훈은 최남선이 경부철도를 보급하면서 팔오조라고 했지만 실체는 칠오조로서 일본 명치년간에 창가 신체시의 칠오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첨언했다. 칠오조가 전통 울조인

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지훈은 김소월 등 시인이 민족의 한(恨)을 노래하면서 신가에 칠오조를 많이 사용하여 칠오조가 전통 울조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칠오조는 최남선이 수입한 일본의 울조(律調)라고 주장했다(1964, p.321). 이 때에 권학가(勸學歌), 학도가(學徒歌) 등 창가가 보급되었다. 또한 이 때 전통의 사사조 노래들이 나왔는데, 심청가(沈淸歌) 등이었다. 1920년대 초등학교에서 많이 가르친 창가는 표모가(漂母歌), 전진가(前進歌)를 비롯해 서정시를 읊은 노래, 즉 서정가(抒情歌)나 이별가(離別歌), 졸업가(卒業歌) 등이 있었다. 그후 1920년대를 넘어 서면서 일제의 우리말 억압 정책에 의해서 차츰 감소했다. 그 때 독립군가(獨立軍歌)가 불려졌다. 농민가(農民歌), 물산장려가(物産獎勵歌) 등은 당시 조만식 등이 일으킨 물산장려운동에 현상 당선된 노래로 그 노래를 지은이는 15세의 윤석중이었다.

그후 어린이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놀이와 동요가 나타난다(신현득, 1982). 대표적으로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 삼천리」로 시작하는 '조선의 노래', '어린이날 노래', 그리고 '반달'을 비롯한 많은 동요들이 불려졌다. 그러나 1930년대에 어린이

날 행사가 금지되는 등 아동 문화 탄압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정책에 맞서서 「정이월 다가고」의 ‘그리운 강남’, ‘봉선화’, 등의 동요가 줄지어 나타났다. 이들은 민족혼과 독립을 고취하는 노래들이었다.

해방 이후 남북한이 분단되고 두 지역에서 어떠한 노래를 어린이들이 부르고 있는지는 조사되어 비교된 바 없다. 단지 남한의 조사(이순형, 1991)가 알려져 있으며 해외 이주 교포의 놀이 노래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실제로 조사된 적이 없다.

## 2. 놀이노래의 종류 및 내용

### 1) 놀이 노래의 종류

놀이는 아동들이 유머를 배우며 스스로 생각하고 환경을 탐색하는 학습활동이다(Galda & Pellegrini, 1985; McGhee, 1984; Slade, 1995; Wohlwill, 1984). 아동은 놀이 중에 또래로부터 스스로 배운다는 점, 또래들의 문화가 자율적으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놀이 연구는 아동들의 정서와 의식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몇몇 연구들이 아동의 놀이를 연구하였다(이 경우 외, 1995; 중앙교육연구소, 1962).

남한의 서울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 방법은 모두 91가지라고 한다(이순형, 1991). 이는 땅따먹기 등 땅에 그림을 그리거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두고 놀이하는 땅놀이 14가지, 술래잡기 등 그 외 규칙 놀이가 21가지, ‘꽃따먹기’ 등 언어규칙 놀이가 13가지, 공기놀이처럼 특정기구를 가지고 노는 놀이 14가지, 발야구 등과 같은 스포츠 놀이 12가지, 닭싸움과 같은 전래 놀이 9가지, 구슬치기처럼 구슬이나 딱지를 따먹는 놀이 7가지, 그리고 기타 놀이 4가지 등이다.

이들 놀이 가운데 주로 고무줄 놀이, 언어규칙 놀이, 율동 놀이 등에서 노래가 불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노래 71가지 중에서 고무줄 놀이 노래가 54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 규칙 놀이 중에 부르는 노래가 13가지, 그리고 동작놀이 노래가 4가지였다. 고무줄 놀이를 다시 그 내용별로 범주화해보면, 동시에 구성된 동요가사가 26가지, 익살스런 노래가 9가지, 교육용 보급 노래는 3가지였다. 또한 TV에서 방영한 만화 영화의 주제가 10가지였다.

### 2) 놀이 노래의 의미 구성

놀이 가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주제를 다룬 것과 특수한 시대 상황이나 특정 사상을 다룬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보편적 주제를 담은 가사는 다시 서사적 내용과 서정적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서사적 내용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 나무와 풀, 꽃과 새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며, 서정적 내용은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이별, 죽음 등의 주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 한 시대의 특수 상황이나 특정 상태를 담은 작품들도 있는데 이는 한 시대의 이념 즉, 종교 사상, 계몽 이념과 계몽 지식을 담은 것이다.

임동권은 1975년 한국 민요를 분류하면서 민요 가운데 동요를 따로 분류했다. 임동권의 동요 분류에 따르면, 동물요(動物謠), 식물요(植物謠), 자모요(慈母謠), 애무요(愛撫謠), 자장요, 정서요(情緒謠), 자연요(自然謠), 풍소요(諷笑謠), 어희요(語戲謠), 수요(數謠), 유희요(遊戲謠)와 기타 노래로 나뉜다. 이순형(1991)은 임동권의 분류와 달리 놀이 노래를 동물, 식물, 사람, 자연물, 계절, 상황 및 기타의 기준으로 나누었다.

어린이 놀이 노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보편적 정서를 다룬 놀이 노래가 있는데 이는 고무줄 놀이와 언어규칙 놀이 중에 부르는 동요이다. 동요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는 주로 서사적 노래인데, 서사적 노래의 내용은 동물, 식물, 사람과 자연물 등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구체적 사물들로서 노래에는 이런 사물에 대한 친근하고 정겨운 정서가 담겨있다(이순형, 1991). 둘째로 시대적 상황 또는 특수 사태로 인해 보급된 노래들이 어린이의 놀이 상황에 적용되어 수십 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고무줄 놀이 노래로 불려졌다. 이 노래는 '무찌르자, 공산당',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등의 노래들은 사십 년 전에 치른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둘째, 이 시대적 변화는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인해 TV를 통해서 방영된 만화 주인공에 대한 노래는 어린이 놀이 문화권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들은 익살스러운 노래들도 불렀다. 유모어란 현실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실이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태를 가정함으로써, 정상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McGhee, 1984),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다. 한편 어린이 놀이 가사에서 나타난 익살은 먹는 음식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 신체 이상에 대한 염려, 빈부 차이 현상에 대한 불편한 심사와 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주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놀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죄책감을 해소하기도 했다.

### 3) 놀이 노래 가사의 전통과 한민족 정서

#### (1) 놀이 노래 가락의 전통성

문헌에서 어린이나 성인의 놀이 과정에서 불리는 노래의 기원을 찾기로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원시 문명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술(呪術)적, 종교적 제의(祭儀)를 거행하면서 천지, 자연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예찬, 기원, 호소 등이 담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것이 제의적 서정시이다. 부여, 고구려, 마한, 진한 등의 풍속을 쓴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委志東夷傳)'의 기록을 보면,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하고 여러 날 동안 노래하며 춤추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현전하는 '구지가(龜旨歌)'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정시는 고구려 초기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 고조선 시대의 '공후인(筊篥引)'을 비롯해서 향가 25수 중 불교 노래인 균여전(均여傳)에 실린 향가 11수를 제외한 14수로 이어진다. 고려시대의 고려 가요는 삼음보로서 3, 3, 4 나 3, 3, 2 조의 운율을 유지하는 서정성이 넘치는 노래들로서, 조선 시대말 '아리랑'을 비롯한 삼음보 구조의 민요로 이어진다.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시대 초에 개화와 애국 계몽을 위해 불렀던 '창가(唱歌)'와 어린이들이 불렀던 동요는 모두 7, 5 조의 형식으로 7음절이 3, 4 혹은 4, 3 으로 나뉜 형태였다. 언뜻 보면, 창가의 울격은 우리의 전통적 기본 음수율인 삼음보에서 벗어난 듯하나, 7, 5 조 역시 4, 3, 5 또는 3, 4, 5로서 3음보격 내에서 변형된 것이다. 고려말에 나타나기 시작해 양반계층에서 구전되어온 4음보격으로 서정성을 띤 시조는 3장으로 6구체를 이룬다. 그밖에 4음보격 운문 형식을 띤 가사(歌辭)는 서사적인 내용을 담았다. 시조나 가사는 모두 양반계층에서 구전되다가 기록된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양반계층이 아닌 서민층에서 발생되고 전승되어온 민간 노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가사가 지나는 기본 운율이 3음보격이며 이 운율이 근래까지도 기본 울격형 체제 안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논문(이순형, 1991)에 따르면 유치원,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같은 놀이 노래를 부르는 동일 세대로 나타났다. 이들이 도중에 부르는 놀이 노래는 70여 가지에

달한다. 놀이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 3음보의 변형인 7, 5조와 4음보의 유지 내지는 변형된 울격을 지니고 있어서, 고려 가요 이후 조선시대 말 창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온 전통적 울격인 3음보와 4음보가 전승, 유지되고 있었다.

## (2) 놀이 노래의 민족 정서와 시대 상황

전통의 유지는 운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다루는 주제를 통한 서정성의 표현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황조가(黃鳥歌)나 공후인(箜篌引)도 남녀간 이별을 다룬 서정시이고, 향가 '제망매가(祭亡妹歌)'는 누이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서정시이며, 고려 가요의 대표 작품, '가시리'를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과 조선시대의 '아리랑' 등이 주로 남녀간 사랑과 이별을 다룬 작품이라는 면에서 주제와 서정성의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 시대의 사상성을 띤 작품도 있는데, 서정성에서 벗어난 작품으로 향가의 '풍요(風謠)'와 고려 속요의 '상저가(相杵歌)' 등은 노동요이면서도 유교의 교조적 가르침을 받아들여 민간에서 작품화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개화기에 '학도가' 처럼 사회계몽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최남선의 '경북철도 노래', '세계일주가(1914)' 등의 창가에서도 확인되어진다. 이는 노래가 인간의 보편적 정서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요구에 입각해서, 유교의 충효사상, 노동의 중요성, 혹은 개화의 이념과 계몽적 지식 등을 전달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가사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시기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노래 가사는 전통적인 기본 울격형을 유지하면서 서사성보다 서정성이 짙은 내용이 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통시대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해방후 근 사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시에 즐겨 부르는 노래 즉, 놀이 노래에서도 전통적 음률과 주제가 전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분단을 경험하면서 남, 북한은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이질화를 경험해 왔다. 남북한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라는 극단적 차이를 경험하는 가운데 중국은 수정 공산주의 노선을 걸어왔으며,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문화 수용 정책으로 조선족들은 나름의 전통적 문화를 보유하면서 생활해 왔으므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인 북한과 남한과 달리 이념적으로는 다소 완화된 공산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해 왔다(수희림, 1990). 이러한 문화 정책으로 인해 연변의 조선족은 전통적 문화를 유지해 왔으며, 전통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조금석, 1991). 따라서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해 온 남한이나 공산화를 추구한 북한이 잃어버린 우리 전통적 문화가 중국의 조선족에게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변화 내지는 계승을 논할 때에는 중국 조선족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적 사회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족의 어린이들이 놀이 중에 부르는 놀이 노래의 가사에서 서정성과 전통적 음률이 지켜지고 있는지, 놀이노래 가사에서 이념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정치상황에 따른 한민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사의 전통성 논의에 입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중국 한민족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노래는 통시적으로 밝혀진 전통적 주제와 울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 중국 한민족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 가사는 이주 후에 사회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셋째 중국 한민족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한 민족 공통의 정서

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 중국 한민족 어린이들이 정체성이 나타나는가?  
부르는 놀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한 민족의 민족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를 조사하기 위해서 놀이 노래의 동일 세대인 10세부터 20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이 시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고 놀이노래를 부를 연령대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집단별 대상수는 <표 1>과 같다. 연변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중등학교 2학년 학생을 포함해 모두 100명이 조사되었다.

#### 2. 조사 도구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인 이순형(1991)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사실을 보완하여 본조사의 면접 조사 문항을 구성했다. 면접 조사 도구는 어린이들의 자발적 놀이 종류 및 놀이 방법에 관한 내용, 자발적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의 종류와 가사, 그리고 그러한 노래 놀이의 공급원을 조사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수

	남	여
소학교(초등학교)	26	24
중학교(중등학교)	25	25
계	100명	

<표 2>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문항수	
놀이 수행 종류	8	
놀이중 노래 여부	8	
놀이 상대	1	놀이노래마다 응답하도록 함
놀이노래의 가사	1	놀이노래마다 응답하도록 함
놀이노래의 학습원	1	놀이노래마다 응답하도록 함
인적 배경 특성	5	
계	24	

### 3. 조사 절차

자료는 1999년 7월 10일부터 1주일 동안 연변의 소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에게 부탁해서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연변에 갔으나 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담임교사에게 부탁해서 아동들이 놀이 종류 및 놀이 방법을 쓰게 하고 놀이 때 부르는 놀이 노래의 첫 구절을 모두 쓰게 했다. 노래에는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와 중국어로 부르는 노래를 모두 쓰도록 했다. 조사시간은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알고 있는 노래를 묻지 않고 놀이 도중에 부르는 노래를 응답하게 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민간 정서의 흐름이 면면히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작곡되어 보급된 노래를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으로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 놀이 도중에 부른 경험이 있는 노래를 응답하도록 했다.

### 4. 자료 분석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와 2명의 아동학 전공자가 놀이 방법별로 분류하고 다시 놀이 노래를 놀이 방법과 놀이 노래의 주제별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이 때 세 사람의 평가자 중에서 둘 이

상이 일치되는 쪽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놀이 노래 가사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의미 범주를 구성하여 각 범주별 빈도를 계산하는 1차 분석과, 가사의 언어적 의미를 형이상학적 의미 구조 범주를 가지고 분석하는 2차 분석을 실시했다. 1차 분석 범주는 이순형(1991)의 범주에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범주를 수정 보완하여 범주 체계를 구성하여 사용할 것이며, 2차 분석의 범주는 크게 사물범주, 서정범주, 이념범주로 나누고, 세 범주 별로 하위 의미범주를 나누었다. 각 하위 범주는 예비조사 결과를 가지고 범주를 분류하여 내용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자료는 한글노래와 중국어노래가 모두 포함되었다. 중국어로 된 노래는 물론이고 한글로 이루어진 놀이 노래도 분류가 어려워서,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 온 대학원생 2명에게 분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분류 결과를 본 연구자를 포함한 아동학 전공자 3명이 내용 분석을 행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자 3명 중 2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따랐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다.

이 조사의 연구결과는 놀이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놀이노래를 세 가지 측면, 첫째 놀이노래의 종류, 둘째 놀이노래 가사의 의미 분석, 셋째 가사의 의미성과 한민족 정서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 IV. 연구결과

### 1. 놀이의 종류와 놀이 대상

#### 1) 놀이의 종류

중국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들의 놀이는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신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 놀이가 많으며 그 내용이 다양하다. 연변 초등학교 5학년 생들의 놀이는 공차기(14), 줄뛰기와 넘기(20), 텔레비전 보기(9) 손바닥 치기(5) 등 신체 놀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변 중학교 2학년생들의 놀



이는 그보다 다양하다. 놀이의 주를 이루는 6가지를 제시하면 춤추기(19), 줄넘기(12), 수건돌리기(12), 공차기(11), 고무줄 넘기(8), 손뼉 치기(7)이다.

중국 연변 소학교 5학년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같이 노는 사람은 친구 74명, 어머니 1명, 형 2명, 누나(언니) 4명, 동생 4명, 언니친구 2명, 친척 2명, 가족 1명, 혼자 5명이었다.

연변의 중등학교 2학년 학생의 놀이 상대를 조사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동성친구 193명, 친구 누나 1, 친척 1명, 가족 4명, 동생 10명, 할아버지 2명, 할머니 2명, 아버지 7명, 어머니 1명, 오빠 2명, 엄마 2명, 누나 5명, 언니 2명이었다. 그리고 이성친구가 6명이었다. 중학생은 사춘기에 들어서서 이성친구의 수가 증가했다.

중국 아동의 놀이는 상당부분 가족과 관련지워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형제와 함께 노는 것은 납득될 만한 일이다. 중등학교 2년생들이 가족, 형제, 조부모, 부모, 친척 등과 함께 놀이를 즐긴다는 것은 가족이 핵가족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 연변 지역의 가족중심 생활문화가 이러한 아동의 놀이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2) 놀이노래의 학습 원천

놀이노래 중에 부르는 노래를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중국 연변 소학교 학생들은 친구 29명, 선생님 14명, 할머니 3명, 친척 1명, 아버지 2명, 어머니 8명, 언니(누나) 13명, 오빠(형) 10명, 동생 1명, 녹음테이프 3명, 책 2명 등이다. 놀이 노래의 원천으로서 친구의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 비중이 더 크다.

중국 연변 중등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놀이노래를 어디서 배웠는가를 물었을 때 친구 97명, 녹음테이프 63명, 텔레비전 40명, 할머니 1명, 아버지 5명, 어머니 12명, 형 3명, 누나 7명, 동생

5명, 아주머니 1명, 이모 1명이었다. 그 외에 선생님 10명, 음악교과서 1명이었다. 이 결과에서 연변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국의 노래를, 오디오테이프에 의존해 스스로 남한의 놀이노래를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놀이노래의 종류

중국 연변 아동들이 놀이 중에 부르는 노래를 분석한 결과, 중국 연변 소학교 5학년 아동들이 부르는 놀이노래는 모두 60곡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가요 22곡, 한국 동요 1곡과 중국 노래 37곡이다. 남한의 동요 중 연변초등학생이 부르는 동요는 '꼭꼭 숨어라'이다. 한국 가요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를 비롯해 최근 남한의 대중가요 가수들(R·E·F, H·O·T)이 부르는 노래가 주를 이루는데 모두 36곡이다. 중국 노래는 중국의 동요, 가요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포 중학교 2학년생들이 부르는 놀이노래 중에 한국노래는 92곡인데 한국 가요 86곡과 비가요 9곡이다. 연령이 높으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1950, 60년대 남한사회에 유행했던 가요와 1990년대 후반에 유행한 락음악이 공존하는 것은 흥미롭다. 해방 후 유행한 가요와 현재의 가요가 공존하는 이유는 정치사회적 상황 때문이었다. 한국과 중국과 자유왕래를 하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 와서였다. 폐쇄되었던 중국이 문을 열자 지난 40여 년간의 대중문화가 동시에 유입되었다. 흘러간 노래와 현재 유행하는 노래들이 같이 중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남한 사람들에게는 옛 노래였지만 중국의 교포들에게는 새로운 노래였다. 7, 80년대의 트롯트조의 가요와 90년대의 락음악이 동시에 중국 교포들에게 전해졌고 그 가요는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각각 교포 사회에 파고들었다.

<표3> 연변지역의 아동·청소년의 놀이별 놀이노래의 사례(한국어)

놀이방법	같이 노는 사람	노래 첫구절	노래 전파자	비고
밧줄 당기기	친구	잘한다. 잘 한다		
줄넘기	친구	따라 배우자 뽀뽀-----	선생님, 어머니	
	친구	동무들이야		
	친구 김령 강리려	산산 금빛산 살곡장에 날두	친구	
	친구	동무들이야 들어오세요		
	친구	새봄이 와요 산들산들 와요	언니	
고무줄넘기	친구	자유의 강산에서	언니	
	친구	눈이눈이 온다야	친구	
	친구	비 내리는 호남선	록음기	
	친구	동무들이야 들어왔어요	친구	
	친구	산산 금빛산	어머니	
	벗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친구	
	주예림	예전보다 지금 니가 더욱 괜찮은 거야	오빠	
	친구	산산 금빛산	친구	
	친구	동무들이야	친구	
	친구	오늘 그 여자를 만났어	텔레비죤	
손바닥 치기	친구	너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	
	언니	오늘 그녀를 만났어	언니	
	언니	너는 가끔 나를 봤어	록음테프	
	동생	오리오리 동동	어머니	
	친구	세상에 좋은 나라 많다하지만	선생님	
	동생	세상에서 엄마가 좋아	친구	
	친구	어머니 아버지 문 좀 열어줘요	할머니	
	친구	밤마다 전등불과 연구하시는	선생님	
공차기	친구	호날드가 환중했다..	형	
	동생	우리집은 중국	어머니	
	친구	빨이다. 좋구나	아버지	
	친구	부모라는 그 이름이 생겨났을 때에		
	친구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것 몰랐던 거죠	누나	
	강우호	널 침 본 순간 느꼈어	누나	
	주승훈	따라배우자 뽀뽀	형님	
	친구	백양나무 우거진 운동장에서	소품중에서	
	친구	산속에 홀로 피어	교사	
	친구	엄마가 지어준 옷을 입으면--	선생님	
	친구	우리는 대세계	형님	
	형님	우리의 전야	교사	
	언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니	언니	

놀이방법	같이 노는 사람	노래의 친구질	노래 전파자	비고
제기차기	친구	이전보다 지금 니가 더욱 괜찮을 거야-	누나	
	언니 친구	너를 사랑해	언니	
달리기	친구	나라 내거다	친구	
	친구	따라배우자 퇴봉을	교사	
자전거 타기	강응호	오리오리 동동	누나	
앉아놀기	친구	뒤보는 사람 나쁜 사람	동무들한테	
길가며	친구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보기	친구	우리엄마 기쁘게 우리는 어린이	교사 형	
	언니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텔레비전	
	친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나	텔레비전	
	친구	세사에 조		
	친구	날아가는 나비처럼	엄마	
	혼자,친구	비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혼자, 오빠	
	친구	백양나무 우거진 운동장에서----	채, 김문혁	
춤추기	집식구	만날 수 없다는 슬픔보다 힘든 건	오빠	
	친구	아무도 없는 겨울에 바다가	오빠	
	금추?	이것봐 나를 한 번 쳐다봐	언니	
	리려?,친구	오늘 그녀를 만났어----	가사, 텔레비전	
	혼자	남자들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친구	
	나 혼자	아직까지 우리 잔들의 틀에	황금 텔레비전, H.O.T	
	나 혼자	어렵게 날아온 내 어린시절이 아직도	황금텔레비전아이들	
컴퓨터	형님	아지랑이 춤을 추는	친구	
게임하기	친구	저푸른 바다 파란물결 속에 떠다니는 외로움	오빠	
	김설화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 봐		
기계사람	친구	우리들이 쪼마 감들이	엄마	

공산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요를 거부감 없이 즐겁게 부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가요의 확산력을 들 수 있다. 연변의 호텔, 음식점, 백두산 가는 길목의 휴식소에도 남한의 가요는 전파되었다. 그 전파력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인간의 정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심리적 기제

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민족 정서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단시간의 단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세기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일단 접속이 되면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를 가진 대중문화는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다. 트루트조의 가요는 노랫말, 즉 가사와 리듬이 대중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고 H.O.T 등으로 대별되는 락음악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리듬, 즉 분출하는 에너지와 사회비판적 가사로 그들의 일상에 억압된 심리를 일깨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0년 2월 초에 H.O.T의 중국 공연을 보려고 청소년들이 몰려들었으며, 그들이 입었던 50만원대 옷이 5,000벌이나 팔렸다고 언론은 전했다. 중국의 일반 근로자의 한달 평균 임금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는 가요의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낸다. 정치사회적으로 억압되고 표출되지 않았던 심리정서적 에너지는 외부에서 단초만 제공하면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H.O.T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움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일종의 단초로 기능했을 것이다.

### 3. 놀이노래 가사의 의미 분석

일제의 침략과 그에 대한 항거와 독립을 지향했던 사회역사적 지역적 특성으로 중국 연변의 조선족 노래는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향(愛鄉)을 짙게 노래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중국 연변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금빛산'이나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금빛산'은 1958년에 리정강이 작사하고 임일이 작곡한 곡으로 오늘날까지 연변 조선족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이다.

#### 「금빛산」

산산 금빛산 탈곡장의 낱알산  
엄마아빠 땀흘린 나라위한 금빛산

산산 금빛산 탈곡장의 낱알산  
아름다운 새생활 꽃피우는 보배산

####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  
유치원 창가에서 노래 부르며

산골에서 나는야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애향, 애족, 애국은 세 측면이나 하나의 실체이다. 중국 조선족의 의식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혼합되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구 소련의 공산당과 달리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고, 소수 민족에게 자치를 허용하는 등 수용적 자세로 통치했기 때문에 만주벌에 정착한 조선족도 자연스럽게 애향심이 생겼다. 이들의 애향과 애족은 한민족의 것이며, 애국은 중국인으로서의 것이다. 민족과 국가를 세분하여 의식하고 있다. 이들은 소수민족으로서 한족을 비롯한 다수민족과 큰 갈등이 없는 것을 보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이 공존을 보장하는데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동들이 애향심과 애족심을 고취하는 노래를 저항하지 않고 따라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변지역의 놀이노래에도 사회정치적 요소의 영향이 없지 않았다. 중국의 공산당은 북한의 공산당과는 달리 유연한 사회화 및 교육 정책을 실시했으며 특히 소수민족에게는 포용 정책을 실시해서 소수민족의 동화를 도왔다. 한족(漢族)에게는 자녀를 1명만 두도록 했지만 소수민족에게는 자녀를 두 명까지 두도록 했다든지, 우수 대학을 설정해 혜택을 줄 때 연변대학을 선정했다든지,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해서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 생활문화를 유지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것이 포용정책의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이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연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자신들의 모국이 중국이고,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응답했다(이순형, 1992). 이들은 국가 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분리해 형성했다.

중국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작곡한 곡들

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급되었다. 연변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중국어 노래로 모택동에 이어 등소평을 찬양한 노래가 전파되었다. 연변의 아동·청소년들은 중국어와 조선어로 된 노래를 모두 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과 북한의 아동·청소년의 노래 문화 정책의 차이라면 통제의 정도에 있지 기본 방향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단지 중국에 개방과 더불어 들어온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노래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데 두 국가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조사한 노래 중에 아래 노래는 전형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는 소박한 정서를 담은 노래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산주의 아래서의 것임을 의미한다.

밤마다 전등불과 동무하면서 어떻게 배워줄까 연구하시는

우리들의 선생님 다녀오신다. 동무들이 달려가서 인사드리자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화애롭게 연구하시는 알기 쉽게 지식을 배워주시는

우리들의 선생님 다녀오신다. 동무들이 달려가서 인사드리자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대한 이상을 가르치시며 공산주의 날개를 키워주시는

우리들의 선생님 다녀오신다. 동무들이 달려가서 인사드리자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 V. 결론

문화이식 현상은 이민 등을 통해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민족 문화에 어떻게 동화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준다. 중국교포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나 경제적 이유로 너른토지를 찾아 이민간 사람들이다(류병호, 1989). 이들이 중국문화에 접하고 두 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났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 이들은 중국의 문화에 동화해 적응하고 있다. 중국문화에 동화되면서도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가는 늘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그동안에는 냉전으로 인해 상호 방문이 어려워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이 개방되어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시점을 맞아 중국 연변 지역에 정착한 이민 교포 3세대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놀이과정에서 부르는 노래를 조사했다.

수집한 놀이노래의 가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 이민 3세인 아동들이 중국 문화에 동화하는 이식과정 속에서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한글

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한민족 노래를 배워서 불렀다. 놀이노래를 통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근래에 중국의 사회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가 변하고 있다. 중국 어린이들의 놀이양상이 신체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활동이 많다. 조부모,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친족과의 놀이도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보다도 중등학교에게 더 짙게 나타난다. 중국의 가족중심 생활문화가 아동, 청소년의 놀이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과 연계된 놀이, 신체 활동 중심의 놀이 활동은 신체 감각운동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소박한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연변 초등학교생들은 주로 신체 활동이나 '줄' 등을 이용한 소박한 신체 활동놀이를 즐긴다. 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그러한 신체 활동 놀이에다가 성인 가수나 십대 가수를 모방한 춤과 노래가 놀이로 유입된다. 한편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한

텔레비전, 게임 등의 놀이가 증가하면서 홀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가상의 청중을 두고 공연하는 놀이가 빈번하다. 이러한 변화는 오디오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전자게임이 빈번해져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청소년들의 생활방식이 놀이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중국 연변의 중등학교 2학년생들의 오디오테이프를 이용한 남한 가요를 독학하는 이러한 경향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조국문화에 대한 선망으로 남한 청소년들의 대중문화를 학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오디오 및 영상매체가 확산되어 자유롭게 영상으로 십대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가능한 일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상은 남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 행태와 들어맞는다. 남한 어린이들이 10년 전(이순형, 1991)에는 신체활동 놀이를 빈번히 했으나 최근 비디오, 오디오 등의 전자음향 매체가 보급됨에 따라서 전 만큼 신체활동 놀이를 빈번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상시대에 아동들의 놀이문화가 신체 활동 내지는 소그룹 활동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영상활동 놀이를 즐긴다.

중국 연변지역의 아동들은 신체 활동을 주로 하고 소박한 자연물을 가지고 노는 놀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학교에서는 춤추기 등으로 놀이가 다소 변하는데 텔레비전, 비디오와 녹음기의 보급으로 남한의 중학생들에게서 가수를 모방한 가요와 춤이 만연되는 현상과 유사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중국 아동, 청소년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는 일제시대에 보급된 동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노래이며 이것이야말로 한민족 정서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원천이다. 앞으로 한민족 공동체감을 형성하려면 이 동요들이 심리적 동질감을 주는 기점이 될 것이다.

연변조선족 어린이들이 부르는 놀이노래는 중국의 동요와 한국의 동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

전에는 북한의 동요가 유입되었었다고 하며 교과서에도 북한의 노래들이 여러 편 실려 있다. 노래의 원천과 놀이노래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전후에 작곡된 노래에서이다. 이 노래들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노래들에서 전통가락과 율격을 지키고 소재가 한민족의 것임과 관련해 어린이들이 민족 정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래의 기초 가락과 율격을 통해서 민족 공통체로서의 정서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연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이념가 내지는 계몽가를 잘 부르지 않고 남한의 대중가요와 젊은 가수들의 락음악 등을 즐겨 부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북한이 더 개방되거나 북한 청소년들이 통일후 경험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사하고 있다. 정작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르는 노래는 남한의 가요들이다. 남한의 가요들은 현재의 것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가요들도 동시에 중국에 유입된 까닭인지 1970년대 가요와 1990년대 가요를 함께 부른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H.O.T 등의 비판적 가사와 리듬의 속도가 빠른 락음악을 즐겨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일이다. 하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가요를 부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한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유행한 가요와 현재 유행하는 가요를 동시에 부른다는 점이다. 전자는 동요, 전래민요나 이념가 등 공식적으로 가르쳐지고 불려진 노래들과는 달리 가요는 감각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중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남한의 가요들이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연정(戀情), 애정(愛情), 이별(離別) 등을 담은 노래들을 부르고 있다. 이는 한민족 고유의 정서에 부응한 가요가 그 전파력이

높다는 것을 밝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파력의 원인은 이 노래들이 리듬 속도가 빠르고 비판적 가사로 구성된 락음악을 즐기는 것은 정치사회 체제의 고정화된 특성에서 연유한 청소년들의 억압된 정서가 이러한 음악을 단초로 하여 시원한 분출력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념의 차이로 인해 반세기 동안 달리 형성된 한민족 아동·청소년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차이점만을 인식하고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한민족 동포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상호 이질감 해소를 돕는 방책으로 놀이노래의 전파성을 이용하여 전통적 동요를 비롯한 놀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TV를 비롯한 언론매체에도 남북한 어린이뿐 아니라 중국조선족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화는 극단적 경쟁체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한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한민족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VI. 참고문헌

- 김성호 (1991). 연변조선족들의 이주경험사에 관한 약간의 조사연구. 민족단결, 4월호. 북경: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고승제 (1973). 한국 이민사 연구. 서울: 장문각.
- 류병호 (1989). 30년대 조선족 이주민. 분화, 북경: 민족출판사.
- 박경희 (1987). 조선민속사연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수희림 (1990). 발전도상의 연변.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 신현득 (1982). 한국 동요문학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우·이상금·이은화·박혜경·김세희·한진이 (1995). 5개국 전래 동요에 관한 연구. 서울: 창지사.
-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 (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대한가정학회지, 35권, 6호, 289-315.
- 이순형 (1991). 놀이노래 가사의 실태와 가사의 전통성 조사. 아동학회지, 제12권, 1호, 68-77.
- 이순형 (1992). 한국과 재외교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의 비교. 아동학회지, 14권, 99-112.
- 임동권 (1975). 한국 민요 연구. 국어 국문학 총서, 12, 서울: 삼우출판사.
- 중앙교육연구소 (1962). 한국 아동의 놀이에 관한 실태 조사.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 조금석 (1991). 연변조선족 생활소묘: 풍경 풍속 인물. 서울: 홍익제.
- 조지훈 (1964). 한국문화사서설. 서울: 탐구신서.
- 최우일 (1988). 우리삶 우리놀이.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Belsky, T., & Most, R. (1981). From exploration to play: A cross-sectional study of infant free-play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630-639.
- Galda, L., & Pellegrini, A. D. (eds.) (1985). *Play, language, and storie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terate behavior*.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McGhee, P. E. (1984). Play, incongruity and humor. In T. D. Yawkey & A. D. Pellegrini (eds.), *Child's play: Development and appli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lade, P. (1995). *Child play: Its importance for human development*. London: J. Kingsley Publishers.
- Wohlwill, J. F. (1984). Relationships between exploration and play. In T. D. Yawkey & A. D. Pellegrini(eds.), *Child's play: Development and appli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